

화장품, 안전 사용 팁!

개인 소지품을 살펴보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화장품이다. 조그마한 샘플 화장품부터 메이크업 풀세트까지, 이제 화장품은 구하기도 쉽고 누구나 항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늘 사용하는 화장품이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정확할까? 화장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통해 더욱 건강한 피부를 가꿔보자.

글/ 김도정 화장품연구팀 사진/ 박중훈

01

홈메이드 화장품이 가장 안전하다?

보존제 처리를 하지 않은 홈메이드 화장품은 보통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냉장 보관하거나 일주일 이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홈메이드 화장품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은 불순물이 많은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다. 제조도 레시피에 따라 정확한 제조방법을 익힌 후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홈메이드 화장품 제조 시에는 사용 원료, 제조방법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2

기초화장품은 성분이 적은 것이 좋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의 성분은 크게 물, 유성원료, 계면활성제, 보습제, 점증제, 색소, 보존제, 착향제, 효능원료 등이 있다. 현재 다양한 제형 및 기능을 갖는 화장품이 수없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적은 것이 좋고, 많은 것이 나쁘다고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인체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분의 많고 적음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화장품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좋은 성분이라도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03

샘플 화장품 오래 두고 써도 괜찮다?

샘플 화장품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다. 이러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샘플 화장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샘플 화장품은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제품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샘플 화장품으로 시험해 볼 때에는 얼굴보다는 뺨 수 있으면 귀 뒤쪽이나 손·발 등에 발라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 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04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화장품은 상온(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으면 제품이 변질·변형되지는 않는다. 다만, 잦은 온도변화는 화장품의 변질을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 화장품을 냉장고에 일단 넣었다면 이후 계속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여름 땀별에 화장품을 내버려둬 립스틱이 녹고 크림에 물이 생기거나, 영하 날씨에 제품이 굳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변질·변형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05

유기농 화장품은 모든 원료가 유기농이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기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동·식물 등에서 유래한 원료이고, 전체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거나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합성보존제나 향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지만, 소비자 및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합성원료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이 아무리 좋은 천연 유래 성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으면, 유기농 화장품 사용 또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기농 화장품의 선택은 환경을 보호하고 인공적인 물질의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개개인의 노력 하나로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06

비누를 쓰면 피부가 나빠진다?

비누의 pH는 8~9로 약알칼리성이며, 피부의 pH는 5~6으로 약산성이다. 비누로 세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중성화 작용으로 건강한 일반 피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피부의 표피가 벗겨진 상태이거나 피부가 대단히 민감한 경우에는 아기용 세안 제품이나 워셔블 폼 클렌징 제품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 클렌징 제품으로 색조화장을 지운 후 비누 세안을 하는 이중 세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중 세안은 진한 색조화장을 했거나 워터프루프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거나 요리나 청소 등으로 피부의 오염이 심한 경우에 필요하다.



07

여드름 피부는 자주 세안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피부는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세안제품과 세안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드름이 많이 난 피부는 피부 각질이나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적절한 세안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고 세안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져 오히려 피부염이 잘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고 또한 일시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져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한다.